

EDITORIAL

담낭 용종의 위험인자

백우현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일산백병원 내과학교실

Risk Factors of Gallbladder Polyp

Woo Hyun Paik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Ilsan Paik Hospital, Inje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Goyang, Korea

Article: Is the Prevalence of Gallbladder Polyp Different between Vegetarians and General Population? (*Korean J Gastroenterol* 2015;66:268-273)

담낭 용종은 대부분 무증상으로 발견되며, 건강 검진 목적의 복부 초음파가 많이 시행됨에 따라 그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¹ 대부분의 담낭 용종은 양성 병변이지만 진단 당시 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성화되어 담낭암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깊은 관찰이 필요하다.² 이처럼 담낭 용종은 정기적인 추적관찰 또는 담낭절제술 등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료비가 지출되며, 환자에게 암 발생의 위험성에 대한 일정 부분의 불안감 등을 감내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윤리적 문제도 가지고 있다.³ 따라서, 담낭 용종의 위험인자를 미리 알고 이를 예방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의료비를 줄이고 환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담낭 용종은 지역 및 인종에 따라 다양한 유병률과 악성 진행 정도를 보이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담낭 용종 연구가 중요하다.⁴⁻⁶ 국내에서 시행된 담낭 용종의 유병률 및 위험인자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모두 건강 검진 수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1997년 서울 단일병원 검진센터의 검진 수진자 35,01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담낭 용종의 유병률은 2.9% (1,030/35,012)로 체질량지수가 담낭 용종의 위험인자였다(22.5 kg/m² 미만인 군에 비해 25 kg/m² 이상인 군이 높은

유병률; OR 1.864, 95% CI 1.458-2.382).⁷ 2006년 대구 및 경북 지역 검진 수진자 8,00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담낭 용종의 유병률은 2.2% (175/8,008)였고, 남성(OR 1.434, 95% CI 1.223-1.682), 비만(OR 1.237, 95% CI 1.029-1.486),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자(OR 1.888, 95% CI 1.467-2.430)가 담낭 용종의 위험인자였다.⁸ 그러나, 상기 연구들과 같이 건강 검진 수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피험자 집단이 전체 사회 인구의 연령 비율 및 성별비와는 다른 분포를 보이기 때문에 실제 국내의 담낭 용종 유병률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에 2014년에 보고된 국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다르게 건강 검진 수진자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하여 일반적 사회 인구의 연령 및 성별 구성과 비슷하게 연구 대상을 모집하여 분석하였다.¹ 이 연구에서 담낭 용종의 유병률은 5.4% (765/14,250)였고, 남성(OR 1.55; 95% CI 1.08-2.23)과 비만(OR 1.90; 95% CI 1.32-2.72)이 담낭 용종의 위험인자였다.

이상 국내에서 시행된 건강 검진 수진자 대상 연구들에서 담낭 용종의 공통된 위험인자는 남성과 비만으로 생각되며, 이는 이번에 발표하는 Jo 등⁹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이번 연구는 담낭 용종이 대사증후군과

©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 2015. Korean Society of Gastroenterology.

교신저자: 백우현, 10380,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내과

Correspondence to: Woo Hyun Paik,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Inje University Ilsan Paik Hospital, 170 Juhwa-ro, Ilsanseo-gu, Goyang 10380, Korea. Tel: +82-31-910-7947, Fax: +82-31-910-7219, E-mail: whpaik@paik.ac.kr

Financial support: None. Conflict of interest: None.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와 채식주의자에서 대사증후군의 발생률이 적다는 보고에 기초하여 “채식주의자에서 담낭 용종의 유병률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하에 시작되었다. 상기 연구의 결과는 저자의 예상과는 다르게 채식주의자에서 담낭 용종의 유병률이 대조군과 차이가 없었고(3.5% vs. 4.4%, $p=0.233$), 단변량 분석에서도 채식이 담낭 용종에 예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OR 0.78, 95% CI 0.51-1.18). 그러나 이번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채식이 담낭 용종의 예방에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는 저자들이 연구 시작 전 예상했던 바와는 다르게 국내의 대표적인 채식주의자로 알려진 조계종 승려군이 실제로는 채식주의자를 대상으로 한 서양의 연구들에서의 채식주의자 집단과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¹⁰ 기존의 서양 연구에서 채식주의자는 일반적인 서구식 식이, 즉 육류 및 유제품 위주의 식이가 아닌 채식 위주의 식이를 하기 때문에 비만이 적고, 생활습관에서도 운동 등 건강관련 활동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 결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조계종 승려군은 대조군에 비해 오히려 체질량 지수, 혈압, 당화혈색소, 중성지방, AST/ALT 등이 유의하게 높으면서 HDL 콜레스테롤은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이번 연구 시작 단계의 명제인 “채식주의자에서 대사증후군의 발생이 적다”는 것에 상반되는 결과이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 채식주의자군과 대조군 간에 연령 및 성별의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 또한 두 군 간의 담낭 용종 유병률을 비교하는 데 있어 제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4년 Lee 등¹의 연구와 같이 두 군 간의 연령과 성별 등을 맞추어 무작위 표본 추출을 통하여 분석하였다면 이와 같은 치우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에서는 저자들이 담낭 용종을 예방하는 데 있어 일상생활에서 교정 가능한 위험인자인 식이와의 연관성을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보고이다. 향

후 혼란변수가 잘 통제된 상황에서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역학연구를 통하여 교정 가능한 담낭 용종의 위험인자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이를 통하여 담낭 용종을 예방하고 장기적으로 담낭암의 유병률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S

1. Lee YJ, Park KS, Cho KB, et al. Shifting prevalence of gallbladder polyps in Korea. *J Korean Med Sci* 2014;29:1247-1252.
2. Boulton RA, Adams DH. Gallbladder polyps: when to wait and when to act. *Lancet* 1997;349:817.
3. Bang S. Natural course and treatment strategy of gallbladder polyp. *Korean J Gastroenterol* 2009;53:336-340.
4. Lin WR, Lin DY, Tai DI, et al. Prevalence of and risk factors for gallbladder polyps detected by ultrasonography among healthy Chinese: analysis of 34 669 cases. *J Gastroenterol Hepatol* 2008;23:965-969.
5. Jørgensen T, Jensen KH. Polyps in the gallbladder. A prevalence study. *Scand J Gastroenterol* 1990;25:281-286.
6. Hayashi Y, Liu JH, Moriguchi H, et al. Prevalence of polypoid lesions of the gallbladder in urban and rural areas of Japan: comparison between 1988 and 1993. *J Clin Gastroenterol* 1996;23:158-159.
7. Shim SG, Lee KT, Lee JK, et al. Prevalence and risk factors of gallbladder polyps in health screening subjects. *Korean J Med* 1999;57:1014-1020.
8. Kim SY, Lee HS, Lee YS, et al. Prevalence and risk factors of gallbladder polyp in adults living in Daegu and Gyeongbuk provinces. *Korean J Gastroenterol* 2006;48:344-350.
9. Jo HB, Lee JK, Choi MY, et al. Is the prevalence of gallbladder polyp different between the vegetarians and the general population? *Korean J Gastroenterol* 2015;66:268-273.
10. Phillips F. Vegetarian nutrition. *Nutr Bull* 2005;30:132-167.